

“ 建築文化 一般論・序Ⅲ ”

— 文化와 主体性 —

박 영 호

건축환경등인 · 의전대표

● 文化와 民族主義

개인이 자신을 위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단이나 국가도 자신을 위하여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公共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음과 같이 민족이나 국가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타민족·他國家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음은 익히 아는 바다. 따라서 자기가 추구하는 이익과 자신을 위하는 행위에는 제한이 따라야 한다는 전제가 앞서 있다. 한 순간의 이익이 다음 순간에 큰 장애가 되었던 경우나 한 순간의 이기심이 상대편의 혐오감을 사므로써 오히려 그만두는 것만 같지 못한 손해를 예상한다면 國家와 民族의 경우도 어떠한 것이 스스로에 진정한 보탬이 되느냐 하는 것은 역시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하겠다. 國家의 영토확장만을 국가 이익의 증대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일으킨 침략 전쟁에서 여지없이 패하므로써 일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처지를 생각한다면 명목상의 이익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이익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깊은 회의를 갖게 한다.

여기서 국가이익이라는 광범위한 문제를 놓고 소론을 펼치려는 것은 아니다. 또 거기에 필자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건축이라는 하나의 문화현상을 일반 문화의 進運과 연관지워 볼 때 건축에 있어서의 발전이 문화발전의 초석이 되지 못하는 못하다 하더라도 작은 기여를 하는 하나 하나를 걸어 낼 때 결국 발전도 문화도 없어져 버린다는 앞서의 견해로

미루어 전체로서 문화적 상황 고찰이 요구된다.

문화를 통하여 민족주의 이론을 전개하려는 입장에 견주어 볼 수도 있겠으나, 결국 어떠한 문화현상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른바 文化民族主義者의 이론적 근거를 대지 않더라도 누구나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국가와 민족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현대 民族主義 理論家들은 “民族集團의 自決과 獨立”을 앞세운다(A. D Adams의 ‘민족주의 이론’ 중에서). 그러나 그 이론의 부수적 성격 가운데서 영토적인 영역을 넘어서 같은 민족이면 모두 합쳐서 통합된 民族國家를 형성해야 한다는 統合的인 의지의 소망이나, 국제사회에서 자위할 수 있는 힘과 대등한 지위를 정당하게 확보하려는 민족보전의 열망은 그 의지와 열망이 지나치게 과대할 경우 그것의 파시즘적 경향으로의 이탈을 염려하게 된다.

아울러 전문가가 나열하는 파시즘의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특색을 살펴본다면 민족주의 운동이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유사 잠재성을 발견한다.

“國家의 絶對性, 생리적 우열에 의한 사회 성격의 결정성, 생존경쟁의 가치인정, 人種 순수정책에 의한 유전적 우수민족 확립에 대한 자신감, 또한 영토의 확장을 위한 영구적 투쟁, 그리고 열등 인종의 정복” 등이다(陳德奎 지음 ‘現代民族主義 이론 구조’ 중에서).

살아 가는데 있어서 自決과 獨立을 보전한다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로서 만약 민족이라는 말이 붙지 않았

다면 구태여 민족주의를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새삼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민족이라는 집단의 통합적 의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치 독일의 착상과 같이 獨逸人이 거주하는 하찮은 지역에 이르기까지도 전 영역의 통합을 주장하여 군국주의적 침략행위를 서슴치 않거나, 민족이라는 순수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타민족에 대하여 배타적 입장에 서는 것을 정당화 시키려 든다.

소위 인종차별정책과 같은 것을 공공연히 하므로써 열등한 민족에 대한 지배나 눈에 거슬리는 민족집단에 대한 학대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파시즘적 경향에 대한 염려스러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경향의 잠재성 때문에 민족주의는 가끔 터부시되기도 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정절없는 女性”이라든가, “스스로의 가치 체계가 결여된 공허한 관념” 또는 “復古主義 운동의 일환”으로 비판받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현대 민족주의 이론가들의 저술을 대하노라면 이러한 오해를 사지나 않을까 하고 지레 겁을 먹고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받기도 한다. 즉 민족과 민족 사이의 평화적 공존 모색, 제국주의적인 힘의 경쟁 배제, 영토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의 배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오히려 당연한 일로서 사람을 당황하게 만든다. 여기에서 민족주의가 지닌 양면성의 고충을 대하게 된다.

민족주의로 통합된 활기찬 기운이 치달려 극에 이를 때 우리는 파시즘

의 대두를 염려한다. 다른 한편으로 는 민족의지가 逸散되어 단합을 보이지 않을 때 강대국에 쉽게 동화되어 스스로의 흔적을 없애려 하는 이른바 헤롯(Herod)적인 모습을 대하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우려 가운데서 진정 보탬이 되었던 민족주의 운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제에 항거하여 쫓겨난 3·1 獨立運動은 말할 것도 없고 말과 글이 다른 조선의 사정과 漢字文化圈에서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영향력을 감안할 때 한글의 등장은 感動的 民族愛의 발현이다. 단테는 復古性이 강한 라틴文字時代에 그 방면의 대가이면서도 자국어에 대한 애착으로 自國語로 '神曲'을 썼다. 괴테는 母國語인 독일어를 보급하고 통일하여 훌륭한 것으로 만드는데 지도적 역할을 한다.

나폴레옹의 제국주의적 침략군에 맞서서 독일인의 민족적 단합을 호소했던 괴테의 민족운동, 그리스의 침략을 맞아 터키인의 단결을 호소한 케말(Kemal Atatürk), 非暴力·非協助의 마하트마 간디의 民族運動.

대체로 비서방 약소국에 있어서의 민족주의 운동은 列強에 의한 제국주의적 침략이 만연하던 시절이며 아무리 짧게 잡더라도 이삼십년 저쪽의 일이다.

때로는 화력이 좋은 총과 날선 칼을 앞세우기도 했지만 聖經을, 人權宣言을, 우수한 과학기술을 자랑해 보이므로써 有色人種에 대한 스스로의 우월감을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입장에서 설득하므로써 세력을 확장했다.

나처럼 이렇게 해 보구려 하는 상냥한 권유에 대해서 차츰 수락 하다 보면 상당히 깊은 지경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비워 주어야 한다. 制度·思想·宗教·生活·관습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권유를 수용함에는 자존심 이전의 精神的 主体性에 관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도대체 자신들은 무엇을 해 왔으며 지금 그들의 정신과 이성은 누가 좌우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각성을 불러 이끈다.

日帝下의 朝鮮文化 抹殺政策을 말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거의 강제적으로 文化를 유린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제국주의적 침입 세

력에 대항하여 團合된 民族意志로서 대항하는 역사상의 민족주의 운동은 의의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진다. 그러나 文化的 自足이나 精神的 主体性은 결코 自決과 獨立만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것 같다.

世界大戰이 끝나고 함께 民族自決主義의 새로운 물결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獨立과 自決을 획득했다. 그러나 精神的인 면에서나 文化的인 면에서의 예측성은 예전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 弱小國일 경우에는 어김없이 文化的 後進國이며 先進文化에 대한 憧憬으로 인해 그들 스스로가 文化的 隸屬化를 가속하는 듯한 인상을 줄 만큼 맹목적 문화 수용을 서슴치 않는다.

獨立을 상실했을 때나 이를 되 았을 때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가치관과 자신의 역사에 있어서의 영광된 순간과 알뜰히 지녀온 전통이 깨어지는 것을 염려했다. 그들은 결국 開化와 改革이라는 명분을 빌어 혼잡하고 골치 아픈 많은 것들을 들여오는데 반해서 소중한 간직해 온 많은 것들을 잃어 버림에 대해 아쉬워 했다. 여기에서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 외래 문화의 選別적 수용, 정신적 주체성을 찾자는 주장을 가능케하는 민족주의 경향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대체로 傳統文化에 대한 保全의 열망은 民族愛의 한 단면이기도 하며, 사실상 민족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이는 문화적 주체성을 견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전통을 계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만이 애국자인 것처럼 칭송되는 어리석음이 거듭되는 것도 그 시대에 지워진 그들의 고충이기도 했다.

● 主体性和 역사상의 復古主義

현대 民族主義者의 공동된 주제가 민족의 自決과 獨立이라면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첫째 사항은 民族文化의 주체성이다. 타인의 간섭을 염두에 없이 스스로가 일을 주관하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과에 대한 만족과 영광을 스스로가 떠맡는다.

여기에서 주체성을 지닌다 함은 모든 분야에서 自己意志, 자유 의사가

통용되는 것이므로 주체성이 없는 노예 상태와 견주어 볼 때 한결 깊은 의의를 지닌다.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인의 의사와 강제력에 의해서 움직여 지는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제일로서 그가 주체성을 지닐 수 있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自決과 獨立이라는 지위로 이어 진다.

민족이 주체성을 상실한다 함은 그 민족이 강대국의 屬國 내지 貢國이나 식민지로의 전락을 의미하는 것과 같이 그 문화에 주체성이 없다 함은 屬國이나 식민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스스로가 처해 있는 문화의 주인공 노릇을 할 수 없음을 뜻한다. 문화를 성립시키고 이를 享受하며, 문화를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 민족 구성원 개개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민족 문화의 세세한 단위, 이를테면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건축이라는 상황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나 건축만을 살핌으로써 주체성에 대하여 판단하려는 데는 당장 노예 상태와 같은 뼈아픈 상처를 주지 않고 한단계 저 뒷쪽의 아픔만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을 통하여 建築文化의 植民地化가 곧바로 민족의 주체성을 앗아간다는 합의에는 미흡함이 있다. 따라서 迂廻的인 길을 통하여 그것의 정치·제도·사상·종교·예술 등의 면을 살펴 봄으로써 주체성의 상실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결과에 도달하는가 하는 더욱 분명한 사항에 도달하고자 한다. 이를테면 디스코 음악을 들어 본다거나 때로는 한복을 입고 다시 한번 상투를 틀어 보는 간단한 행위를 두고 精神的 墮落을 논위하거나 復古的 배타적 애국주의 까지로 연계하려는 데는 논리의 비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통념을 따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치적인 면에서의 주체성의 상실이 곧바로 일반문화로 이어지듯이 건축문화에 있어서의 隸屬性과 타락에 관해서도 상관된다는 대략적인 합의에 도달한다. 때로는 힘에 있어서 우위를 양보하므로써 문화적인 면에서 자주성을 허락받는 경우도 없지 않겠으나 활발한 문화적 기상을 펴가는 데는 아무래도 제한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朝鮮이 中國에 대하여 행한 禮遇에는 貢國으로서 열세

한 입장에서 평화를 얻어내려는 저 의에서 비롯되었으나, 문화적인 면에서 支那를 알지르려는 氣概가 흔치 않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一例로서 중국이 내린 儀禮를 철저히 지키므로써 그들의 환심을 사려한 처사라든가 (明使가 저술한 ‘使朝鮮錄’ 참조). 한양의 건설에서 기본 구성이나 가로망의 골격은 중국에 따르나 다소 규모를 축소하므로써 그에 못미치게 하는 경우(金儀遠, ‘國土開發史’ 참조)는 문화적 자주성에 제한적 요소가 되었음을 생각할 수 있는 지극히 적은 예에 속한다.

대체로 강대국은 민족주의를 운위하거나 주체성을 논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약소국의 공통된 이해에 관한 것이다. 주인의 그의 노예에 대하여 주체성을 논하려 하지 않음과 같이 약소국, 문화적 후진국이 선진국에 대항하는 일관된 관심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우리는 동양 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西歐文物과의 접촉에 있어서 한결같은 괴로움과 혼란을 보아 왔다. 開化라는 명목으로 이들 나라가 겪었던 근대화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바로 서구화였었다는 공통된 견해에 도달한다. 정치·제도·사상·종교·과학·기술·교육·생활패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이른다.

이 시기에 서구로부터 밀려 들어오는 문물에 대하여 스스로의 문화적 자주성을 어떻게 견지하려 했었던가는 앞서 지적한 관심사의 하나다.

우리가 가상할 수 있는 첫번째는 팔레스타인의 켈릿(Zealot)의 경우처럼 완전히 빗장을 걸어 잠그고 유입을 막아 내거나 일단 들어온 것은 싸워 물리쳐 버리는 경우다. 淸朝에 있어서 義和團事件이나 朝鮮에 있어서 反和洋夷를 내세운 大院君의 단호한 鎖國的 결의를 볼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로서 서양문물의 유입을 통하여 국력을 부강시키려는 이른바 개방정책을 쓴 일본의 明治維新과 중국에 있어서의 孫文을 비롯한 國民黨지도자들과 조선에 있어서의 改革派 지도자들을 볼 수 있다.

결국 스스로가 문을 열거나 아니면 의세에 의하여 문이 열렸다. 수천년

을 그리했던 바와같이 권위와 전통을 앞세워 거드름을 피웠던 중국마저도 같은 길을 걸어야 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나 밀려 들어오는 문물에 대해 스스로의 고유문화를 지키려는 시도에는 개혁과 근대화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들의 우수한 과학 기술로부터 얻은 문명의 利器와 자유와 평등사상에 대한 정신적인 면에서의 感化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 꺼리낌없이 스스로의 것에 대한 평가절하를 감행하는데 주저함을 았아갔다. 때에 따라서는 中體西用이나 東道西器라는 말로서 그 상황을 얼버무리기도 하였지만 자기 민족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버림으로써 스스로의 전통에 대한 역사의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들이 바라는 문화적 주체성과 자기 것에 대한 아낌의 소망은 더욱더 어려운 일로 남기게 되었다.

이러한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주체성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몇가지 일반적인 경우를 다시 생각해 본다.

하나는 그 상황에 처한 개개인 각자의 생활에서 가능한 한 외래적인 요소를 물리쳐 내므로써 그 空白에 스스로의 옛 것을 다시 집어 넣는 경우다. 이른바 어떤 文明이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택하게 되는 방법 중의 하나로서 復古主義라고 부르는 경우다. 곤란한 현재로부터 떠나 상쾌하고 향수어린 추억의 과거로 복귀하므로써 골치 아픈 현재를 잊어 버리려 한다. 적어도 이렇게 하므로써 어느 정도의 주체성을 지니게 되는 것으로 안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절대군주를 꿈꾸고 왕정복고를 꾀한 袁世凱나 天황과 神道を 부활하고 민족의 통합된 감정으로 古代日本으로의 복귀를 꿈꾸던 일본의 軍國主義者들이나, 그들의 言語 가운데서 자기 것이 아닌 페르샤어와 아랍어를 몰아내고 言語의 순수성을 찾아 復古를 감행한 케말(Kemal Atatürk)의 경우나, 아니면 서구문물 자체의 우수성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스스로의 권위와 자존심만으로 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오히려 자기 쪽에 두었던 淸朝末 학자 李善蘭과 같은 경우와 서양의 바른 歷法을 알

면서도 자존심의 손상을 염려하여 맞지 않는 역법을 우겨 써오던 淸朝의 관료들을 생각하게 된다.

이들은 주체성을 非西歐의인 곳에서 찾았다.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서구적인 것의 결함도 비서구적인 곳에서 찾았다. 그러나 그들이 찾아낸 비서구적인 것은 그들만이 영광과 권위를 누렸다고 생각되는 저 옛날로 복귀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되었다.

흙사 鋼鉄과 콘크리트가 출현하였으나 창의력이 미치지 못한 건축가들이 이로써 고딕 건축의 재현을 열심히 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말로 참 그리스적인, 참 로마적인 걸작품을 만들어 내야겠다는 생각에 잠겨 있던 로마네스크 建築家들처럼 창조적인 노력을 도외시 하였다. 그들을 짓누르는 서구적인 것에 의한 중압감이 가중될수록 더욱 더 먼 곳으로의 도피를 생각하는, 일견 달콤하고 일견 손쉬운 방법에 매달리려 했다. 창조적 노력을 게을리하므로써 새로운 세계 — 그들이 원하는 비서구적 세계 — 를 탄생시키기 위한 껍질이 깨어지는 아픔도 자연 후일로 미루어야 했다.

다른 사람들이 새 술을 새 부대에 넣고 있을 때 復古主義者들은 새 술도 부대로 만들어 낼 창조력을 지니지 못했다.

그들은 서구적인 것으로부터 연유한 열등감, 수치감의 극복을 비서구적인 곳에서 찾으려고는 했으나 그 시점의 곤란한 처지로 이끌어 온 그들의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는 데서 흡사 얼굴만 가리고 몸을 숨기려는 것과 같은 우화적 아이러니를 만들어 내었다. 그들은 서구적인 것도 復古的인 것도 아닌 창조적 노력에 의한 제3의 방법을 다음 기회로 미루었다.

수치감 때문에 도피할 필요는 없었다. 또 자존심을 앞세워 타의 우수성을 부인해서도 안된다. 마찬가지로 창조를 빙자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저버리려는 음모도 배격되어야 한다. 팔을 안으로 너무 굽혀도 밖으로 너무 펴도 곤란은 일어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평정대하고 客觀 妥當한 문화 창조의 길을 열어 주는 기수의 역할로서 에리트의 출현을 기다리는

일이었다.

다음의 분류표는 世界史上的 復古主義 사례를 행위의 주체 및 대상과 이들의 결과 영향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표로 만든 것이다. 각 대상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견해는 토인비의

“A Study of History” 원본과 섬머 벨에 의한 축소본으로 洪思重의 번역본을 참고하고 크레인브린톤의 世界文化史(A History of Civilization) (梁秉祐 譯) 및 馮友蘭의 “中國思想史”(姜在倫 譯)와 야부우찌 기요시의 “中

國의 과학문명”(金相運 譯)을 참조한 것이다(여기에서 이 많은 상황 사례에 대한 전문 지식은 필자의 능력 범위를 넘고 있음을 재론한 여지가 없는 것으로 한다).

구분	행위의 주체	행위의 대상 및 내용	미치는 영향, 결과
제 도 사 상	1 Hellenic 시대 (폴타크 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시 풍요 승배의 부활 스파르타 소년을 Artemis Orthia 제단 앞에서 때리는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파르타식 교육 그러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함
	2 로마제국 BC. 2 C 크라크스 형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년전의 취지부활 호민관 직무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화정의 몰락으로 로마를 독재로 몰아 넣음
	3 로마제국 아우구스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주제 부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두정치에서 군주제로 변함 로마제국의 운명을 재촉함
	4 영국. 17c 찰스 2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왕정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68년 명예혁명 유발 (특면부 발행, 의회권리 제한. 혼란을 가중시킴)
	5 불란서 J. J. Rousseau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return to Nature’, ‘the simple life’ 제창(고귀한 야만인 예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 혁명-유럽의 대혼란 초래 자유 사상을 고취시킴
	6 중세 이후 서구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Hellenic 문명의 망령 부활 입헌정치의 부활 예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헌정치의 곤란과 실패가 처음에는 이태리 도시 국가에서, 다음에는 넓은 범위에 걸쳐 유해한 규모로 그리스적 전제군주의 출현을 재촉함.
	7 샤르트르 마뉴 AD 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마 제국 부활(교황 레오 3 세로부터 왕관을 받고 서로마 제국 탄생) Hellenic 문명의 망령이 중세무대에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生命力이 약함(헛수고 文化)
	8 오토 1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성로마 제국(로마제국의 망령 부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국주의 사상을 고취시킴
	9 신성 로마제국 교황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마법 부활(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속적인 지방국가 육성에 도움을 줌 신성로마제국의 몰락과 교황 제의 파멸을 재촉
	10 이 태 리 파시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세 이태리에서 행해졌던 정치·경제 체제 부흥 협동 조합국가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生命이 짧음
	11 이 태 리 뭇소리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마제국의 분위기 부활 스스로를 시이저(Cesar)의 후계자로 부르고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Mare Nostrum)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중해 정책에 있어서 모험을 불사함
	12 독 일 나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인의 우월성 강조. 과거 독일이 성취한 위대한 업적에 치우치는 교육 (독일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통합 주장. 독일인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지가질 권리를 인식) 로마제국의 망령부활(신성로마제국에 이어 제 3 제국의 꿈을 실현시키고자 함)(비교: 나폴레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접국민의 미움을 받음 세계대전을 자초하고 패망함
	13 清 袁世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내각제를 폐지하고 帝位를 되살리려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화의 추이에 대처하지 못함(헛수고에 그침)
1	바빌로니아(BC9~7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슈멜문명의 淺浮彫 양식 부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력 결여
2	사이트왕조(BC7~6C)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전 에집트 고왕국의 조각. 회화양식 부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력 결여
3	로 마 하드리우스 황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대(BC 7~6C) 그리스조각의 걸작품 모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력 결여
4	비 잔 틴 (AD 10~12C)	<ul style="list-style-type: none"> BC 5~4C 의 애틀리카의 천부조 양식 부활 (예. 디프티크의 상아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력 결여
5	중세. 서구 건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마건축의 부활 Romanesque 건축 성립 Hellenic 문명속에 비잔틴, 사라센의 것이 혼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에 있어서 독자적인 예술적 자질에 대한 불모화 초래 生命力이 짧음(카리프크 시대의 시리아 문명 세계에서 시원한 고딕건축에 당장 압도되어 버림)

구분	행위의 주체	행위의 대상 및 내용	미치는 영향, 결과
교	3	독 일 나 치 스 히틀러의 막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상숭배로의 전환 주장(바그너의 오페라에 나오는 고대 독일의 제신에 호감을 지님) • 튜톤 민족의 이교를 부활시키려 함
	1	서구 중세 그리스도교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부활
	2	Renaiss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전시대의 인간 존중사상 부활 • 人文主義
철	3	中国 · 唐 AD 6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교철학의 부활(유교 고전의 국가시험제 부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헛수고 • (바그너작 '니벨룽겐의 반지' : 튜톤민족의 위대성을 찬양, 민족적 우월감 고취, 인종차별 정책에 기회를 줌)
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페르니쿠스 학설의 큰 장애가 됨 • (권력을 쥐고 있는 쪽이 본래의 가치 이외에 아무런 취득할 점이 없는 경쟁상대에게 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함없는 진실 재확인 • 역사로 부터 얻는 교훈의 재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유교주의자는 정신적으로 대승불교에 굴복해 버림 • (새로운 유교주의자는 도교도나 불교도 자신보다 더욱 충실하게 도교와 불교의 근본사상을 지님)



• 建築相談案内 •

본회에서는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 **無料建築相談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 설계 및 시공 · 관계법규 등 건축과 관계되는 사항〉

□ 월~금요일 / 오후 1 시 - 오후 3 시까지

□ 서울 /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지부별관 723 - 6258 · 8059